

교구 예배 교안 2024.02.18.

| | |
|--------|--|
| 예배의 선언 | 묵상기도하심으로 교구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예배를 위한 간단한 기도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양 | 뒷면 참조 |
| 합심기도 | 예배를 위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
| 대표기도 | 담당자 |
| 성경봉독 | 담당자 로마서 6장 1~2절 |
| 말씀 | 교구장 [신자와 죄의 관계] |
| 나눔 질문 | 1)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2)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죄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맞대응하겠습니까? 3)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달은 것이나 결단한 것을 나누어 봅시다. |
| 합심기도 | 각 가정의 기도 제목 나누기 1. 교회를 위하여 - 원로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교역자들, 교회 사역과 여러 행사들을 위해 2. 긴급한 기도제목을 위하여 3. 각 가정과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 (질병, 자녀들 진로, 취업, 관계 회복, 경제적 문제 해결 등) 4. 교구장이 축복하며 마무리 기도 |
| 공지사항 | 교구장 |
| 주기도문 | 다같이 |
| 교제 | 다같이 |

제목: 신자와 죄의 관계 본문: 롬6:1-2

바울은 신자가 주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고 증거합니다. 주의 은혜는 죄를 많이 짓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자가 죄 가운데 더 살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증거합니다. 그것은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어 죄 가운데 더 살 수 없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어 죄의 유혹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완전 성화”를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인데요. 이들은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에 어떠한 죄의 유혹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자가 이 땅에서 성화를 위해 노력함에도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한다고 증거합니다. 다음으로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을 심리적으로 이해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실제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어 있다고 생각하면 죄의 유혹이 와도 이를 잘 물리쳐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니 진리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인본주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를 죄에 대하여 점점 죽어가는 우리로 이해하는 잘못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죄에 대하여 죽는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우리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살 수 없다는 말씀의 바른 해석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책에서 해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신자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이 면죄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신자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의 지배는 종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자는 종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지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거듭났고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지각을 여셔서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 안에서 죄인이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죄에 의해 지배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고, 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이 올 때 여러분이 죄의 종이 아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의 유혹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경배와 찬양♯

(통 202)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

L. E. Jones, 1899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말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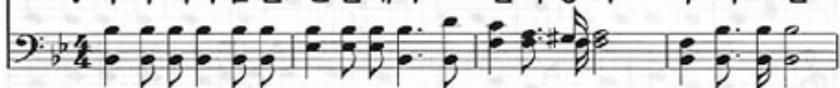
POWER IN THE BLOOD: 10.9.10.9. REF.

L. E. Jones, 1899

보통으로



1.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2.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3.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4.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 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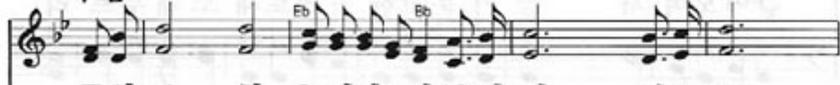


시 험을 이 기고 승 리 하 니 참 놀 라 운 능 력 이 로 다
 정 결 한 마 음 을 얻 게 하 니 참 놀 라 운 능 력 이 로 다
 부 정 한 모 든 것 밝 히 시 니 참 놀 라 운 능 력 이 로 다
 날 마 다 나 에 게 찬 송 주 니 참 놀 라 운 능 력 이 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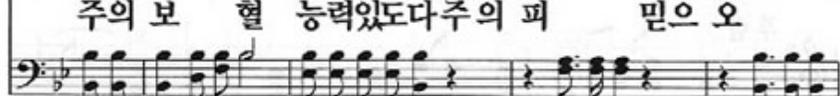


후렴

주의 보혈 능력 있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보혈보혈

쉬운 기타코드(Capo=1st): Bb → A Eb → D F → E

Would you be free from your burden of s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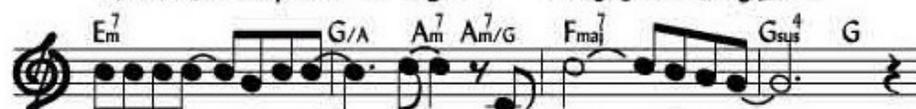
회개와 응시

♯경배와 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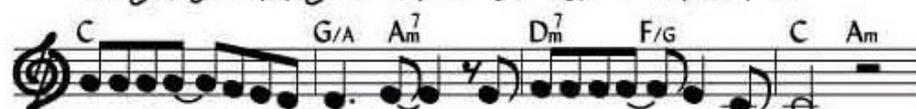
은혜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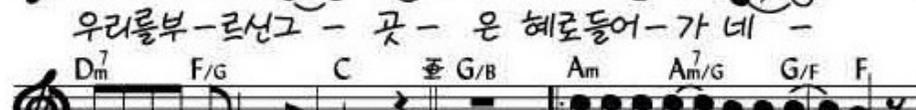
은혜로만 - 들어가 - 네 - 은혜로만 - 선다네 -
 우리의 노 - 려이아 - 님 - 어린양의 - 보혈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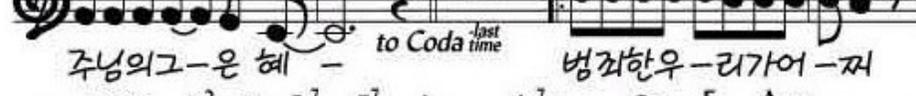
그분의 임 - 재가 온 - 데 - 오 라 - 하시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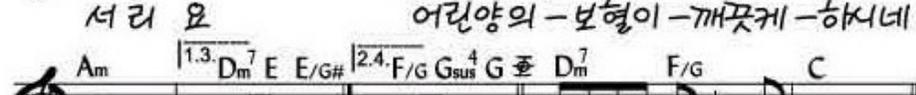
우리를 부 - 러신 그 - 곳 - 은혜로 들어 - 가 네 -



주님의 그 - 은혜 - to Coda ^{last time} 범 죄한 우 - 리가 어 - 지



서 리 요 어린양의 - 보혈이 - 깨끗케 - 하시네



D.C. ^{al} Coda 주님의 그 - 은혜 -